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194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년 7월 6일(목) 13:3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194차 중앙위원회 회의

회 순

●—— 개회

●—— 노동의례

●—— 위원장 인사말

●—— 성원보고

●—— 보고 안건

1. 광양 포운 투쟁 경과보고 건 3
2. 최저임금 관련 보고 건 8
3.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건 10

●—— 토의 안건

1.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상반기 총파업 대기 해제의 건 17
2.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투쟁 계획 건 19
3. 예비비 집행에 관한 건 22
4.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의 건 23

●—— 기타토의

보고안건1 : 광양 포운 투쟁 경과 보고 건

1. 포운투쟁 개요

- 2017년 원청 포스코의 분사매각 시도에 성암산업노조는 투쟁을 통해 2018년 분사 없는 매각을 포스코와 합의
- 포스코의 약속과 달리 성암산업이 작업권을 반납하고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하면서 금속노련과 2달 가까운 국회 노숙농성 진행. 경사노위 중재로 사회적 합의
 - 일시적 분사매각 수용 시 포스코 및 신설 하청에서 ▲ 기존 노동조건 유지 ▲ 1년 이내에 분사 이전 상태 회복 ▲ 분사 시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는 신설 법인에서 단체협약을 승계 보장
-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으로 조합원의 1차(2020년 8월) 복귀 후 단체협약 체결하였으나, 2차(2021년 8월)로 복귀 후 사측과 일방적 승급체계변경, 연차휴가 사용제한, 근로면제시간 및 교섭위원수 감소 등의 문제와 2018년 이후 동결된 임금문제로 투쟁 시작
- 이후 장기투쟁, 약 400일에 가까운 천막농성 투쟁을 사측과 협상을 통해 종료하기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김준영 사무처장 투쟁 결합

2. 금속노련 포운 천막농성 투쟁 결합 이후 주요경과

- 2023/05/18(목) 천막농성 388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과 간담회 실시(석식)
- 2023/05/22(월) 천막농성 392일차
 -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천막농성 투쟁 결합
- 2023/05/23(화) 천막농성 393일차
 -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광양제철소장 행정부소장 면담
 - 광양지역 포스코관계사협의회 노조 위원장 회의
 - 광양지역노조 긴급 확대간부 회의에서 교섭권 금속노련에 위임결정

○ 2023/05/25(화) 천막농성 395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포스코 이강배 팀장 간담회
- 김만재 위원장 노동부 여수지청장 천막농성장에서 간담회
- 김준영 사무처장 박병민 성광기업 대표와 간담회

○ 2023/05/27(토) 천막농성 397일차

- 광양지역노조 C조 2근무조 2시간 부분 파업
- 김준영 사무처장, 포스코 고상민 그룹장, 박병민 대표와 간담회
- 사측 쟁위행위 불법이라며 항의 공문 발송

○ 2023/05/29(월) 천막농성 399일차

- 천막농성장 앞 철제구조물(높이 8.7M의 철탑) 설치 후, 김준영 사무처장 고공농성 돌입

○ 2023/05/30(화) 천막농성 400일차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강제, 폭력 연행(김만재 위원장 조사 거부 투쟁)
- 광양지역노조 김만재 위원장 강제, 폭력연행에 따라 전면파업
- 금속노련 및 산하조직 천막농성장 앞 강제 폭력연행 규탄 집회
- 광양경찰서 항의 전화 투쟁
- 한국노총 및 회원조직, 금속노련 규탄 성명 발표
- 노사 단체교섭

○ 2023/05/31(수) 천막농성 401일차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강제 연행(김준영 사무처장 포운 노사합의 전까지 단식 선언)
- 광양지역노동조합 금속노련 위원장 및 사무처장 강제 폭력연행 규탄 집회
- 광양경찰서 항의 방문, 경찰과 대치
- 한국노총 기자회견 개최(국회 정론관)
- 한국노총 기자회견 개최(광양경찰서)
- 광양지역노조 천막농성장 앞 강제 폭력연행 규탄 집회
- 김준영 사무처장 병원 입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김만재, 김준영 면회

○ 2023/06/01(목) 천막농성 402일차

- 천막농성장 앞 강제 폭력연행 규탄 및 석방 촉구 집회
-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만재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김만재 위원장 이송 차량 마중
- 포스코 사내하청 노사분쟁 및 윤석열 정권 공권력 남용 및 살인적 폭력진압 관련 대책회의 (국회)
- 순천경찰서 앞 기자회견 개최 및 대기 투쟁
- 김만재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출소
- 천막농성장 앞 집회
- 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의원 천막농성장 방문

○ 2023/06/02(금) 천막농성 403일차

- 광주지법 순천지원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 천막농성장 앞 집회
- 금속노련-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간담회(김주영, 소병철, 이수진, 서동영 국회의원, 박홍배 노동위원장 참석)
-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실질심사
-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규탄 한국노총 기자회견(서울 경찰청 앞)
-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23,296명)
- 순천지원 앞 기자회견 개최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대기투쟁
-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청구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 김만재 위원장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간담회
- 노사 단체교섭

○ 2023/06/03(토) 천막농성 404일차

- 광양지역노조
- 노사 단체교섭(노조 요구 11개 항 중 4개 항 합의, 미합의 7개 항에 대해 차주 월요일 지속 교섭, 노사 모두 6/5(월) 잠정 합의 도출 의사 확인)

- 2023/06/05(월) 천막농성 406일차
 - 노사 단체교섭(노조 요구 11개항 중 1개항 추가 합의 총 5개항 합의)

- 2023/06/07(수) 천막농성 408일차
 -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광양 농성장 앞)
 - 노사 단체교섭

- 2023/06/08(목) 천막농성 409일차
 - 윤석열정권 심판 투쟁선언 한국노총 기자회견(용산 대통령실 앞)
 - 노사 단체교섭(고용노동부, 3자 합의에서 빠지겠다 통보)

- 2023/06/09(금) 천막농성 410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순천교도소 이감
 - 노사 단체교섭(3자 합의 유지 여부 교섭)

- 2023/06/11(일) 천막농성 412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신청

- 2023/06/12(월) 천막농성 413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심사
 - 노사 단체교섭(이후 20일 실무교섭, 21일 본교섭, 23일 3자 교섭 진행 합의)

- 2023/06/13(화) 천막농성 414일차
 -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김준영 사무처장 단식해제)

- 2023/06/19(월) ~ 2023/06/26(월)
 -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전국 각 거점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노련, 지역본부)

○ 2023/06/20(화)

-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기자회견(용산, 사내하청)

○ 2023/06/27(화)

- 윤석열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간부대회(서울시청, 용산까지 행진)

보고안건2 : 최저임금 관련 보고 건

I. 2023년 최저임금인상 활동 경과

1)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 전원회의 활동

-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총 9차례, 연구위원회 5차례, 현장방문 총 4차례 진행되었음.
-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주요 의결 사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순차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제2차 전원회의(23.5.25)에서 만장일치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의결함.
-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 7차 전원회의(23.6.22)에서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이 진행된 결과, 재적 위원 총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됨.
- 지난 5월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부재와 관련해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박준식 위원장)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그 결과 위원 부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과정상 표결 필요 사안 발생 시 대리표결이 가능케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6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사항은 무시한 채,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위촉을 난데없이 요청함. 한국노총은 법정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신규위원(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교체 절차에 응하였지만, 노동부는 직권 해촉을 제청(23.6.21)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내 불리한 협상 구도가 전개됨.
- 7차 전원회의(23.6.22)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양대 노총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추후 불리한 구도의 전원회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향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6월 26일(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 한국노총은 8차 전원회의(23.6.27) 전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개최, 이후 전원회의 시작 직전 한국노총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해촉과 김만재 노동자위원 추천 거부 등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노골적 개입을 비판하며 노동자위원 전원 퇴장, 이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 9차 전원회의(23.6.29)에서 2024년 최저임금 적정 금액 논의 시작, 부결로 법정심의기한

도과

- 10차 전원회의(23.7.4)에서 1차 수정안 제출(노동계 12,130원, 사용자 9,650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주말 최저임금이 9,800원 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촉구했으며,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하는 10만 명의 서명 전달
- 11차 전원회의는 7월 6일 예정

2) 연대 활동(양대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 양대노총

- 지난 4월(23.4.4) 양대노총은 물가폭등 시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은 최소 시급 12,000원으로 우선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양대노총은 완전한 정부 및 각 기관의 통계가 구축된 이후 기자회견(23.6.21)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을 **시급 12,210원**으로 확정 발표함.
-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의 주요 근거로는 물가폭등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불평등 양극화 지표 확산을 주요 근거로 활용함.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 국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장외 최저임금 전략 및 전술 활동(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운동본부는 출범(23. 4. 26) 이후 세 차례 연속토론회(플랫폼 노동자 적용방안, 인상수준, 산입범위 제도 개악)를 진행하였으며, 사안 및 시기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II. 향후일정

○ 최저임금 인상 촉구 활동

-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향후 심의 정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성명 및 논평,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 상시 전개키로 함.

보고안건3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건

1. 개요

- 윤석열 정권의 집권 후부터 시작된 노동개악 및 노동탄압 등 반노동 정책,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그리고 최근 당 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살인적 폭력연행·구속 사태 및 이후 윤석열 정권의 태도 등 정세를 종합하면,
- 윤석열 정권의 목적은 집권 기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정권비판세력 모두를 제기불능 한 상태로 고립·말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존립을 좌우하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당 노련 중앙위·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정권 심판투쟁을 넘어 정권에 반대하는 제 단체 등과 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이 절실히 요구됨.
- 아울러 당 노련은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5번의 시기 집중 투쟁과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공세적 투쟁을 결의한 바 있음,
- 한편, 최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비상시국이 선포되고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퇴진을 위한 실천과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음.
- 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대의원대회 결의(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적 투쟁전선을 구축 및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공세적 투쟁 결의)에 따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하 ‘윤퇴본(준)’이라 함]함께 할 것을 결정함.
- 현재 윤퇴본(준)에는 학생, 청년, 시민사회단체 및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진행(2023년 7월 1일 기준, 제46차) 중인 촛불행동 등 여러 단체들이 참가 또는 연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그 참여단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6~17년 박근혜 퇴진운동 참여단체 수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윤퇴본(준) 참가 당시 윤퇴본(준)제안 단체에서는 당 노련 위원장을 10명 이내의 공동대표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 노련이 총연맹조직이 아닌 점 등 조직의 대표성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윤퇴본(준)에 참가하되 공동대표는 고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달함.

2.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제안문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

정권 퇴진 투쟁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앞장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함께 준비합시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우리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열사의 이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 승리하는 내일을 위한 나침반 같은 유지(遺志)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검찰독재정권, 반노동 반민중 정권, 반민주주의 반평화 정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앞장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고 탄압받아 온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었습니다.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운운, 노동시간 개악과 반노동 정책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 말살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성은 도시빈민들에게도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간부 6명에 대한 전격적 구속이 이어, 도시빈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점말살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빠른 속도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한국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보따리를 안겨주고, 서민들에게는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가혹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주권과 평화는 유린되고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행각과 한반도 전쟁책동은 우려를 넘어, 민중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까지 묵인하고,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와 먹거리의 방사성 오염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대만문제 개입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국제분쟁과 군사적 충돌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비판과 저항에 쐐기를 박고, 물리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 공안수사팀을 구성하고, 노동자 민중 탄압에 특진을 내걸면서 무차별적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고며 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머리가 깨지는 노동자, 양화동열사의 시민분향소까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민간인 사찰, 조작된 간첩단 사건 등을 남발하며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도 도를 넘어섰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선진화를 운운하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으로 도덕적 흠집을 내며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10년전, 100년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는 이제 저항과 항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범국민적 항쟁으로 함께 준비합시다.

윤석열 정권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비상시국이 선포되고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퇴진을 위한 실천과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입니다. 가장 고통받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준비해 갑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퇴행의 길이 아닌 한 걸음 전진하는 길을 열어 왔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나아가 이 땅의 만연하고 고착화된 불평등한 한국사회 질서를 혁파하고 한국사회와 정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는 길을 열어 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각계각층 단체와 사회원로 인사들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윤석열 정권퇴진 공동기구’ 구성을 힘차게 제안합니다. 아울러, ‘7월15일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1차)’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6월27일(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사회원로 인사들과 함께 ‘퇴진 투쟁 공동기구 제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역사적 투쟁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및 주요일정

□ 향후 계획

○ 제단체, 진보정당 및 지역 간담회

- 취지(목적) : 윤퇴본(준) 소개 및 참가단체 조직화
- 진행기간 : 6월 하순 ~ 7월까지 집중 진행
- 주요내용 : 윤퇴본(준)의 의미와 계획 소개 및 참가 제안 등 (공통PPT 준비)
- 대상 : 간담회를 요청하는 모든 단체와 지역 등

○ 퇴진선포 언론광고

- 취지(목적) : 7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홍보 및 윤퇴본(준) 참가단체 확대 조직화
- 광고인단 모집 : 단체 3만 원 / 개인 5천 원
- 광고 일정 : 신문광고(7월 12일 수요일) / 광고비 잔액에 따라 추가 온라인 광고 추진
- 광고비 계좌 : 기업은행(박석운) 077-143065-01-018

○ 교육선전 사업

① 교육해설지(단체배포용)

- 한글자료 및 PPT 자료 : 6월 29일까지 배포
- 카드뉴스(알기쉬운 퇴진 시리즈) : 7월 4일까지 배포
- 동영상 및 쇼츠영상(퇴진이 답이다) : 7월 5일까지 배포

② 온라인 거점

- 홈페이지 : 각종 자료 공유 / 퇴진투쟁 활동 공유 / 주요 뉴스 및 시사 공유 등
-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유튜브 개설 등

③ 각종 선전물

- 실천활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 : 현수막, 피켓, 대자보 등

○ 주요실천(행동) 계획

① 각계각층 퇴진투쟁 선포 선언 및 기자회견

- 취지(목적) : 퇴진운동본부 참가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의 여론을 확산하고 퇴진투쟁의 주체로서 결의를 다지기 위함. (개인-1인, 퇴진선언 병행추진)
- 진행기간 : 7월 3일~7월 14일 (2주간)
- 방식 : 중앙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 각계 릴레이 퇴진선포 기자회견(선언) / 지역별 7.15퇴진투쟁 참가 선언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등

② 전국동시다발 캠페인 선전전

- 주요 내용 : 노동자 총파업지지 선언, 후쿠시마 오염수 너나 마셔! 7월 15일 가자 서울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전 진행
- 방식 : 인증샷, 1인 시위, 현수막 및 대자보 부착 등 / 핵 오염수 가정용 현수막 신청접수&배포
- 진행기간 : 7월 3일~7월 14일 (2주간)

③ 당면현안 투쟁(실천행동)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쟁 총력집중
 - ☞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 공동대응을 통해서 퇴진투쟁으로 발전 : 집중촛불(7/4, 7/11), 집중집회(7/8, 7/15), 범국민서명운동, 다양한 실천행동 등
- 노동탄압 저지, 노조법 2.3조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지지 등
- 공안탄압, 집회시위 금지, 민주주의 파괴책동 및 검찰독재 저지 투쟁
 - ☞ 공안탄압, 장애인 탄압,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쿼터퍼레이드 탄압, 집회시위 자유 침해 등 민중탄압 저지, 민주주의(헌법정신 훼손) 파괴책동 저지 투쟁
- 굴욕외교 중단, 반전평화 투쟁 전개
- 친재벌, 사회공공성 파괴(공공요금 인상 포함 등) 저지 투쟁
- 민중생존권 쟁취(농민-빈민-자영업 생존권 파괴 저지, 전세사기 국가책임 촉구) 투쟁

□ 주요일정

○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 제단체 대표자회의 및 공동기구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전10시~11시, 장소 : 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퇴진 범국민대회(1차) : 아래 참조

7.15 윤석열 정권퇴진 (1차) 범국민대회 (안)

(1) 취지(목적)

- 범국민적 요구로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결의를 모으기 위함.
-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정권퇴진 투쟁을 본격화 (하반기 총궐기 결의)

(2) 개요

- 일정 : 2023년 7월 15일(토) 16시
- 장소 : 서울 도심 (광화문~시청광장~종로 일대)
- 방식 : 전국집중
- 조직화 목표 : 노.농.빈 3만명 + @ (각계각층)

(3) 대회상

① 사전대회

- 진행시간 : 7월 15일(토) 13시~16시 전까지 자체 결정. 진행
- 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확대간부 외, 공공운수 / 서비스 / 금속(확간) 전국집중
- 농민대회 : 조직목표 5천여 명
- 사전대회가 없는 참가단체 :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등 현안 의제를 중심으로 대시민 행동전 전개(도심행진 등)

② 윤석열 정권퇴진 (1차)범국민대회 (본대회)

- 진행방식 : 사전대회가 있는 조건에서, 간략하고 상징적이며 역동적인 대회
- 세부 기획안 : 추후제출

③ 사업비 예산

- 전국조직 20만 원 / 개별단체 10만 원 이상

- : 1회 납부(투쟁 등 상황에 따라, 이후 추가 분담금 별도 논의)
- 각종 후원모금, 재정연대 사업 등을 추진
 - 공동대표단 별도 협의를 통해, 특별 분담금 등 책정

○ 윤석열 정권퇴진 범국민대회(2차)

- 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예정, 장소 : 미정

토의안건1 :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상반기 총파업 대기 해제 건

의 결 주 문

지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대응과 노동개악 등 저지를 위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관련,

1. 다섯 번 집중 투쟁 중 상반기 총파업 대기를 해제함.
2.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7월 15일 윤퇴본(준) 1차 범국민대회 참가 투쟁으로 대체함.

1. 개요

- 지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대응과 노동개악 등 저지를 위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관련,
- 다섯 번 집중투쟁 중, 두 번째 투쟁인 1차(상반기) 총파업 투쟁은 상반기 노동개악 시도될 경우, 총파업 지침 하달 및 실행(쟁의권 미확보 조직은 총회 또는 교육시간 활용 또는 개별적으로 총파업 집회 참여)기로 한 투쟁으로, 상반기 노동개악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제함.
- 다만, 상반기 투쟁과정 중 금속노련 임원을 폭력연행·구속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금속노련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하고 노동탄압을 가속화 하고 있는 조건에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7월 15일 윤퇴본(준) 1차 범국민대회 참가투쟁으로 대체함.

2. 향후 계획(수정)

- 2차(7월 15일) : 상반기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대체
 -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 3차(8월 12일)
 -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
- 4차(11월 13일 전후)
 - 11월 13일 노동자대회(양대노총 공동집회 또는 범국민대회) 집중 참가

○ 5차(11월~12월)

- 정기·연말 국회투쟁이 예정된, 11월~12월 노총 투쟁 일정에 맞춰 하반기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 노총 요청으로 9월 집중투쟁이 별도 배치될 수 있음(토의안건 2 참조).

토의안건2 :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투쟁 계획 건

의 결 주 문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투쟁 관련,

1. 광양사태 이후 투쟁 평가하고,
2. 하반기 투쟁을 계획함(노총 요청 9월 집중투쟁 위원장 위임).

1. 평가

- 이른바 광양사태 이후,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시도 저지, 경찰 동원 노동탄압 분쇄, 김준영 사무처장 조기 석방,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광양지역노조(포운) 투쟁 승리를 목표로,
- 6월 19일 ~ 6월 26일까지 서울 및 각 지역 거점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 투쟁과 사내하청 노동3권보장 기자회견(용산), 6월 27일 한국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간부대회에 압도적 조합원이 참가함으로써 금속노련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과시함.
- 다만, 여건 상 노련의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일부 지역본부가 있었고,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지역의 투쟁력을 발동·강화·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사안이 광양 포운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광양을 중심거점으로 하기엔 사안의 중대성과 사무처의 역량 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투쟁의 목표와 수단·방법이 각각 윤석열 정권 퇴진과 그 투쟁역량·방법으로 수렴되므로 이를 통일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2. 향후 계획

- 아래 참조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금속노련 하반기 투쟁계획

1. 목표

-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시도 저지, 경찰 동원 노동탄압 분쇄
- 김준영 사무처장 조기 석방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광양지역노조(포운) 투쟁 승리

2. 투쟁계획

(1) 집중투쟁

○ 7월 15일(토) :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윤퇴본(준)]

- 일정

☞ 2023년 7월 15일(토) 15시(사전대회) : 금속노련 자체 대회(장소 추후 공지)

☞ 2023년 7월 15일(토) 16시(본대회)

- 장소 : 서울 도심 (광화문~시청광장~종로 일대)

- 방식 : 전국집중

- 조직화 목표 : 금속노련 1천 명 이상

○ 8월 12일(토) : 윤석열 정권 퇴진 8.12 범국민대회[윤퇴본(준)]

- 일정 : 2023년 8월 12일(토), 시간 미정

- 장소 : 서울 도심 (세부장소 미정)

- 방식 : 전국집중

- 조직화 목표 : 미정

○ 9월 : 금속노련 또는 금속노련 제안 한국노총 투쟁 : 금속노련 위원장 위임

- 일정 : 2023년 9월 중(일시 미정)

- 장소 : 서울 도심 (세부장소 미정)

- 방식 : 전국집중

- 조직화 목표 : 미정

○ 11월 13일 전후 : 노동자대회

- 일정 : 2023년 11월 13일 전후(일시 미정)

- 장소 : 서울 도심 (세부장소 미정)

- 방식 : 전국집중

- 조직화 목표 : 미정

○ 하반기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 노동자대회 또는 범국민대회 또는 전국동시다발투쟁

- 일정 : 2023년 11월 ~ 12월

- 장소 : 서울 도심 또는 지역 동시다발 (세부장소 미정)

- 방식 : 전국집중 또는 동시다발

- 조직화 목표 : 미정

(2) 단위별 계획(7월 14일 까지)

① 금속노련

○ 서울 주요 거점 천막농성투쟁(사무처)

- 일정 : 2023년 7월 10일 ~ 김준영 처장 석방 시
- 장소 : 서울 주요 거점(세부장소 미정)
- 방식 : 사무처 천막농성, 지역본부별 지지농성 및 방문

○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선포 금속노련 기자회견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중
- 장소 : 노총 6층 대회의실 또는 용산
- 참가 : 금속노련 임원, 사무처, 참가가능 대표자, 윤퇴본(준) 공동대표

○ 서울 주요 거점 1인 시위 및 선전전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 장소 : 여의도역 등 유동인구 많은 곳
- 방식 : 1인 시위 및 선전전(출근, 점심 각 1시간)

○ 카드뉴스, 동영상, 숏영상 배포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 방식 : 카드뉴스, 동영상, 숏영상 제작 지역본부 배포

② 지역본부

○ 지역 주요 거점 1인 시위 및 선전전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 장소 : 지역 유동인구 많은 곳
- 방식 : 1인 시위 및 선전전(출근, 점심 각 1시간)

○ 카드뉴스, 동영상, 숏영상 배포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 방식 : 노련 배포 카드뉴스, 동영상, 숏영상 단위노조/지부 배포

③ 단위노조/지부

- 일정 : 2023년 7월 10 ~ 14일
- 방식 : 지역본부 배포 카드뉴스, 동영상, 숏영상 조합원/가족/지인 배포

※ 피켓 및 선전물은 노련 시안 배포, 지역 제작 후 노련에 비용 요청

토의안건3 : 예비비 집행에 관한 건

의 결 주 문

금속노련 예산전용을 회의자료 예산 전용안과 같이 의결함.

1. 근거

○ 금속노련 규약 제 29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9.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2. 목적

○ 예비비 5천만원을 전용하고자 함.

3. 세부내역

○ 포운노동조합의 긴 투쟁과 투쟁 중에 발생한 사태와 함께 예상치 못한 투쟁비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가. 예비비 51,361,040을 투쟁기금으로 50,000,000을 전용

*투쟁기금과 예비비 예산 집행현황

예산항목		2023년 예산	예산집행액	잔액	집행률
(투쟁기금)	항	20,000,000	13,921,250	6,078,750	69.6
투쟁기금	목	20,000,000	13,921,250	6,078,750	69.6
[예비비]	관	51,361,040	0	51,361,040	0.0
(예비비)	항	51,361,040	0	51,361,040	0.0
예비비	목	51,361,040	0	51,361,040	0.0

토의안건4 :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의 건

1. 경과 요약

- 2023.05.23.(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천막농성 합류
- 2023.05.29.(월) 천막농성장 앞 철제구조물(높이 8.7m의 철탑) 설치 후, 김준영 사무처장 고공농성 돌입
- 2023.05.30.(화) 김만재 위원장 강제, 폭력 연행(조사 거부 투쟁)
- 2023.05.31.(수) 김준영 사무처장 강제 연행(포운 노사합의 전까지 단식 선언)
- 2023.06.01.(목)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만재 위원장 영장 실질심사
김만재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출소
- 2023.06.02.(금)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실질심사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 청구
- 2023.06.09.(금) 김준영 사무처장 순천교도소 이감
- 2023.06.11.(일)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신청
- 2023.06.12.(월)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심사
- 2023.06.13.(화)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김준영 사무처장 단식 15일만에 해제)
- 2023.06.19.(월)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 2023.06.26.(월)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부위원장, 쟁의부장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 2023.06.29.(목) 검찰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김만재 위원장, 광양지역노조 위원장·부위원장·쟁의부장 불구속 기소

2. 취지 및 목적

-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된 지 한 달 여 지난 상황에서 각급 조직에서 연대의 뜻을 담은 기금을 여러 경로로 전달해오고 있음.
- 현재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시급한 비용문제는 영치금보다 향후 발생할 법률비용임.
- 김준영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 기소, 김만재 위원장 외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등 3인은 불구속 기속되었으며,
 - ▲사안이 엄중하여 법률투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 ▲이미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법률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했다는 점
 - ▲한국노총 차원의 법률투쟁비용 지원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인에 대한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을 제안함.
- 또한 법률투쟁비용으로 모금한 금액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금속노련 투쟁기금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함.

3. 모금방식

- 모금기간 :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조성방안 : 각 단위노조의 자율결정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
- 추진방식 : 조직과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모금
- 모금단위 : 한국노총 및 각 산별, 지역본부, 금속노련 단위노조
- 모금계좌 : 금속노련 명의 계좌(추후 공문 시달)

기타토의